

# 기업의 사회책임(CSR)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역할

진병용\*·부기덕\*\*·김희락\*\*\*

## I. 서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책임(CSR) 문제가 활발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들은 이를 경영 이념과 중장기 경영전략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책임(CSR) 문제는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활동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금세기에 들어서는 미국·EU·일본 등 선진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사회책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지난 8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자원과 전략의 최우선 과제를 주로 부실자산의 감축과 수익성 증대를 통한 재무성과의 개선에 두어 왔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업태별로 다소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안전성, 건전성, 수익성 등 제반 재무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1997년에 6% 대에 머물렀던 BIS자기자본비율이 2005년에는 12% 대로 올라선 반면, 부실여신 감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ROA, ROE 등 수익성 지표도 아직 선진국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2005년말 현재 각각 1.24%와 17.78%로 선진 은행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 서민저축금융기관 등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경영 성과의 개선으로 한 숨을 돌리게 된 국내 금융기관들은 뒤늦게나마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윤리경영·투명경영을 표방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CSR보고서」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기업의 사회책임(CSR)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기관의 사회책임 영역과 대상이 점차 다각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들의 경제적 가치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제고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원칙과 철학을 세우고 제시하여 시장을 주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금융기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화시켜 나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기업에 우호적인 정체성 및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이해하고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 대구은행 대은경제연구소 소장(본부장)

\*\* 대구은행 대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대구은행 대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책임이 단기적 이벤트성이나 수사적 구호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업문화에 흡수되어 정체성으로 확립되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들의 개발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성과로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광역의 다각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동시에 수익기반을 다양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사회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경영활동의 한 축으로 체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 II.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의의와 국제적인 흐름

### 1.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의의와 태동 배경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의 기반인 사회에 대해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일상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그 사회의 공정성이나 윤리성,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별 기업들이 추구하는 CSR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국가, 지역, 시장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 의미에서 CSR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영업활동이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상호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와 환경에 관해 배려하는 행위’ 또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배려와 기업 활동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즉 CSR은 법적 의무로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행동이다. CSR의 대상은 종업원·소비자·협력업체·투자가·지역사회·환경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이며, 이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요구가 각 기업들의 CSR의 주 내용이 된다. 말하자면 CSR은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셈이다. 특히 자금조달, 종업원의 채용, 원재료의 구입과 제조,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 프로세스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SR이 요청된다. 따라서 CSR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이나 본업 이외의 사회봉사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arrol(1979)은 기업의 사회책임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추구되는 책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표 1> 참조).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CSR은 이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CSR)이 태동한 배경으로는 기업 활동영역의 확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 개념의 확산, 사회가치관의 다양화, 소비자의 친환경소비(green consumerism)와 투자가의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등을 들 수 있다.

1) "A concept whereby companies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their business operations and in their interactive with their stakeholders on a voluntary basis."

EU위원회가 2001년 7월에 공포한 그린 페이퍼(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서 정의됨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분류

단계	분류	기능
제1단계	경제적 책임	이윤 극대화
제2단계	법적 책임	법과 규제의 준수
제3단계	윤리적 책임	윤리적 기준 준수
제4단계	자선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

자료 : Carrol(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산업연구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책임투자(SRI), e-kiet, 산업경제정보, 제182호(2004.1.13)에서 재인용

기업의 CSR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과 더불어 이제는 기업을 CSR의 원칙 하에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기업들 중에는 CSR을 이익추구와 상반되는 문제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CSR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주와 투자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주가치의 증대를 도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CSR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 기업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CSR 우량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국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이란 이미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점도 있다.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을 배려한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세계 각지에서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CSR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주요국의 대응

###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CSR 표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단순한 논의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 표준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는 지난 엔론,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태로 경제적 파장과 사회적 파장이 야기됨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기에 이른 데다, 환경경영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 경영이 제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CSR 표준화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ISO는 2004년 9월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CSR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으로는 2006년 말까지 표준안을 만들고 2008년 중에 공식안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준은 기존의 ISO9000(품질경영기준), ISO14000(환경경영기준)과 함께 기업의 경영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sup>2)</sup>. CSR 표준이 제정될 경우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ISO는 2001년부터 국가 및 기관별로 다른 CSR 표준을 통합하려는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이를 SR 국제표준으로 확대했다. 9월 방콕 회의에서는 SR 국제표준의 기본틀이 마련되고 늦어도 2008년 3월까지 ‘ISO 26000’으로 명명된 SR 국제표준을 제정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향후 2년여 동안 각국 정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국가와 기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한 SR라운드가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다. 국내외적으로 신용등급과 함께 투자결정의 주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의 경우 각종 국제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2) 기업의 사회책임(CSR) 관련 가이드라인

###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CSR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CSR 가이드라인의 제정도 활발해지고 있다. UN은 1999년 1월 아난 사무총장이 세계인권포럼에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구상을 제창하였다. 이 구상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네 분야에서 기업이 사회책임을 완수하고, UN 산하 기관의 다양한 활동에 기업이 참가하여 지구 차원의 과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UN의 글로벌 컴팩트에는 법적 규제 등은 없고, 그 이념에 찬성하는 기업이 매년 1회 UN의 글로벌 컴팩트 홈페이지에서 추진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표 2> 글로벌 컴팩트의 10가지 원칙<sup>3)</sup>

분 야	원 칙
인 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노 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해야 한다.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
환 경	7. 기업은 환경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해야 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가격 청구 및 뇌물 등의 부패에 대응해야 한다.

자료 : UN Global Compact

글로벌 컴팩트에 규정된 10가지 원칙(<표 2> 참조)은 세계화로 야기된 인권, 노동,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참가를 요구하는 기본사상 위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자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 행동이 기업의 자주성에 맡겨진데다 행동 결과를 평가, 측정하는 수단도 아니어서 실효성의 확보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출범 5년여 만에 87개국 2,4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제안으로 부상한 만큼 글로벌 컴팩트의 중요성과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 행동기준으로서 1976년에 발표되었으며, 그 후 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OECD의 30개 가맹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33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당국의 사회 경제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3) 권동혁, 박지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SUSTAINABILITY ISSUE PAPERS 제29호 ECO2005-10 참조

## Caux 원탁회의의 기업 행동지침

민간기업이 참가해서 작성된 CSR 행동기준에는 「Caux 원탁회의의 기업 행동지침」을 들 수 있다. 1986년에 스위스의 Caux에서 설립된 Caux 원탁회의는 미국·일본·유럽의 민간기업 경영자들의 단체로 설립 당초에는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공정한 경쟁과 공존 공영의 양립을 지향하는 共生의 이념이 제창된 이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사회적·경제적 위협을 줄여나가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해 왔고, 1994년에 그 결과를 정리해서 기업의 행동지침을 공포하게 되었다.

## 글로벌 기업책임의 원칙

기관투자가 단체가 기업에 요구하는 행동규범으로는 「글로벌 기업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투자가 단체 ICCR(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가 중심이 되어 1995년 9월에 발표한 것이다.<sup>4)</sup>

## SA8000

SA8000(Social Accountability 8000)은 1997년에 미국의 CSR평가기관 CEP(Council for Economic Priorities)를 모체로 설립된 CEPAA(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 on Accreditation Agency)<sup>5)</sup>가 창설한 인증 규격으로 주로 발전도상국 등의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 열악한 조건하에서의 착취노동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sup>6)</sup>

## CERES 원칙

환경문제에 관한 기업의 행동기준 중 대표적인 것으로 CERES 원칙을 들 수 있다.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환경에 책임을 가진 경제를 위한 연합)은 미국의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NPO)로서 1989년에 SIF(Social Investment Forum)를 모체로 하여 기관투자가, 노동조합, 환경보호단체, 종교단체, 공익 NPO 등이 연합하여 발족하였다.

1989년의 발테즈호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관리 책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ERES는 10개 항목의 원칙을 공포하였다. CERES 원칙의 내용을 보면, ① 생태계의 보호, ②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폐기물의 삭감 및 안전한 처리, ④ 에너지 보전, ⑤ 환경리스크 삭감, ⑥ 안전한 제품, 서비스, ⑦ (환경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복원, ⑧ 정보 공시, ⑨ 경영진의 책임, ⑩ 감사와 보고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GRI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 NPO, 회계사 단체, 노동단체, 환경보호단체, 기관투자가 등의 참가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단체로 기업 영업활동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4) ICCR은 기업들에게 다음의 8개 요건, 즉 ① 관계자가 관여할 수 있는 개정 절차, ② 국제적 인권선언, 환경기준, ILO 기본적 노동조건의 내용 포함, ③ 법령준수 이상의 기준 설정, ④ 기업 전체적으로 실시, ⑤ 구입업자, 판매업자 모두 적용, ⑥ 내 외부의 규범준수 감시시스템, ⑦ 감시자의 자유로운 사업소 접근 보장, ⑧ 규범준수에 관한 정기적 보고서 발행 등을 충족 시킨 실효성 있는 규범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みずほ総合研究所(2003), p20

5) CEPAA는 현재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로 개명되었다.

6) SA8000에는 ① 아동노동, ② 강제노동, ③ 건강과 안전, ④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⑤ 차별, ⑥ 징벌, ⑦ 노동시간, ⑧ 보수, ⑨ 관리시스템 등의 항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みずほ総合研究所(2003), p23

측면에서 평가, 공시하는데 활용되는 국제적 기준인 「GRI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2000년 6월에 공표하였다.<sup>7)</sup>

2005년말 현재 전세계 747개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에서는 총 75개 금융기관이 보고서를 공표하여 단일 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 (3)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

#### ① 미국

미국의 경우 연금기금이나 SRI 투신회사 등 민간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주도하에 CSR에 관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11월 뉴욕에서는 세계적인 CSR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sup>8)</sup>. 이 밖에도 CSR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해서도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SR 및 SRI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조직에 CSR 담당부서가 설치되는 등 다양한 대응체제가 마련되고 있다. SRI는 기업에 대한 투자기준으로 수익성이나 배당 등의 재무적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윤리와 환경에 대한 배려, 지역공헌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SRI의 절차로는 ①적격 심사(screening), ② 주주행동, ③ 지역사회 투자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 적격 심사는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CSR과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투자상품을 선정하는 절차이다. 다음으로 주주행동은 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행사,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의 CSR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끝으로 지역사회 투자란 통상 은행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자층이나 저개발지역에 대해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자층의 주택취급자금이나 개업자금, 혹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주택 건설자금, 탁아시설 건설자금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 ② 일본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2002년말 CSR표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CSR표준위원회는 경제산업성이 주관하고 經團連과 다수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공식기구이다. CSR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CSR JIS 규격화는 ISO 14001 규격과 마찬가지로 경영시스템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위원회는 그간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대응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SRI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성을 배려한 돈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한 것이 SRI펀드이다. 이는 기업들의 재무정보 외에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부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신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SRI펀드로는 「에코펀드」(Eco fund)를 들 수 있는데, 이 에코펀드는 사회적 평가 중에서도 기업의 환경배려도에 착안하여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투자신탁으로 1999년 여름에 당시 닛코(日興)증권이 처음 판매를 개시하여 인기를 모았다. 그 후 에코펀드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4개의 자산관리회사가

7) 2002년 8월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2002년 개정판(이하 GRI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보고서의 구성은 ① 비전과 전략, ② 기업과 보고서 개요, ③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 ④ 색인, ⑤ 성과지표 등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みずほ総合研究所(2003), p27,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자료”, 12.27

8) 당시 회의의 공통주제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통합 : 위험과 보상(Integrating CSR : Risk and Reward)’ 이었다.

추가로 에코펀드를 발매하였으며, 2000년 가을부터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공헌이나 소비자 대응도가 평가기준에 추가로 포함된 SRI펀드가 설정되었다.

에코펀드 붐은 2001년 이후 침체되면서 SRI펀드의 총액 잔액도 감소하긴 했지만, 일본 내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기업의 사회책임이 중요시되면서 다시금 SRI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에코펀드가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싶다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의 에코펀드는 환경을 포함하여 폭넓은 기업의 사회책임(CSR)을 고려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SRI펀드라면 성실하고 안전한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인 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③ EU

EU에서는 민간 차원의 대응과 함께 각국 및 EU 전체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제가 모색되고 있다. 최근 역내 각국에서 CSR 및 SRI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조직에 CSR 담당부서가 설치되는 등 다양한 대응체제가 전개되고 있다.<sup>9)</sup>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7월에 연금법이 개정되고, 연금운용수탁자(기관투자가)는 반드시 투자원칙에 투자 상품의 선정·보유·매각에 있어 사회와 환경, 윤리 측면을 고려할 것과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투자에 수반한 권리행사의 기본방침을 공시토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정확하게 SRI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기준으로서 CSR을 고려토록 했다는 점에서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CSR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2001년 4월에 CSR업무가 정부의 주요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현재는 무역산업성의 경쟁정책담당 장관이 동 임무를 맡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4년에 최초의 SRI 펀드가 설립되는 등 SRI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SRI 브랜드의 자산총액도 유럽 최대 규모인 약 40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2002년 5월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CSR 담당장관을 임명한 프랑스는 2001~2002년에 걸쳐 CSR관련 정보의 공시를 규정한 일련의 법령 제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은 영국과 같이 연금기금이나 종업원저축플랜을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대해 CSR을 배려한 투자 및 의결권 행사와 그 상황에 대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2001년 8월부터 연금기금 운용회사에 대해 윤리, 환경, 사회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sup>10)</sup>

9) 2001년 7월에는 EU위원회가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라고 하는 보고서(Green Paper)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 주식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 설립의 기초가 되는 환경 및 사회성도가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되는 주가지수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0월 EU위원회는 CSR 이해관계자 포럼(Multi-stakeholder Forum)을 설립하였는데 동 포럼에는 기업, 노조, NGO, 투자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고 있다.

10) みずほ総合研究所(2003), pp14-16

### Ⅲ. 해외 선진 금융기관의 사회책임(CSR)경영

#### 1. 구미(歐美) 금융기관의 사회책임경영

자유와 시장원리를 가장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은행에 대해 「기업의 사회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1977년에 제정된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은 은행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영업구역 내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은 CRA의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의 합병이나 지점의 개설 등의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CRA평가는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당연히 CRA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외 이미지가 나빠지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sup>11)</sup>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금융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영업지역의 자금수요에 부응하여 자금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을 CDFI(지역개발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라 하며, 각 금융기관은 규모가 작지만 나름대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CDFI는 Community Development Bank(지역개발은행),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지역개발신용조합), 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지역개발대출기금), Community Development Venture Capital(지역개발벤처캐피탈)로 대별된다. 가장 기관수가 많은 것은 비영리 금융기관인 지역개발대출기금으로 개인법인에 대한 용자를 비롯하여 경영에 관한 자문이나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총자산금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지역개발은행이다.

<표 3>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의 종류

명 칭	총자산규모	특 징
지역개발은행(CSBs)	31억 달러	CDFI중 최대, 저소득자층 대상, 지역재건자금 등에 용자, 통상의 은행업무 수행, 예금보험 대상
지역개발대출기금(CDLF)	24억 달러	특정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해 저금리 용자, 예금보험 대상
지역개발신용조합(CDCU)	18억 달러	비영리조직, 회원에 대한 은행업무, 예금보험 대상
지역개발 벤처캐피탈펀드(CDVCF)	3억 달러	저소득층 거주지역 또는 저개발지역의 벤처캐피탈

자료 : 2001 Report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Trends in United States, みずほ総合研究所(2003), p9

한편, 미국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super fund법)가 1980년에 공표되면서 금융기관들도 거래기업의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이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감독관에게 금융기관이 환경리스크 관리 체제를 내부에 구축토록 요구하고 있다.

11)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자료 2005. 12.27



<표 4> 미국 은행의 환경리스크 대책의 개요

리스크의 분류	사례	대책의 개요
신용리스크	- 거래기업이 토양, 지하수 오염의 정화명령을 받아서 예상외의 지출이 늘어나고, 손해배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금상황이 어렵게 되는 리스크	- 수많은 소송이나 공개 정보, 각종 연구 등의 정보를 기초로 리스크를 정량화해서 신용등급에 반영 -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리포트나 기업의 공시 정보 등을 기초로 잠재적 배상액의 부담 가부를 판단
담보리스크	- 담보를 설정한 토지가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되거나 인체에 나쁜 석면의 존재로 해당 부동산에서 당초 기대한 수준의 자금회수가 어렵게 되는 리스크	- 토양오염의 유무(가능성도 포함)나 석면의 유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가를 환경자산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신용리스크의 추가 정보로 활용해서 심사를 수행
금융기관 책임리스크	-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토지나 건물의 매각, 오염원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정화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	- “잠재적인 환경배상책임의 관계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등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으로서의 활동 범위를 준수
평판리스크	- 환경 측면 혹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출한 결과 악평이 나고, 투자거나 예금자를 상실케 되는 리스크	- 기업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행동지침 등을 정의
컨설팅 리스크	- M&A 등 컨설팅 업무 시에 환경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고 차후 환경오염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리스크	- M&A 등의 금융중개업 관련 컨설팅 업무에서 자산평가를 실시할 때에 적절한 환경자산조사를 실시

자료 : 近代セールス, ‘金融機関に求められるCSR’, “環境リスクとマネジメント”(2005.12.15)를 바탕으로 작성

이 때문에 은행 자신이 환경오염관계의 배상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거래 기업들이 환경오염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즉 거래기업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출 심사프로세스 중에는 환경자산조사(Environmental Site Assessment)가 포함되어 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예컨대 M&A를 추진할 때에도 환경자산조사를 수행토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 환경자산조사는 보통 EP(Environment Professional)라고 불리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다.

UNEP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 지역 은행의 80%가 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과정에서 고객기업의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기존의 여신관리절차를 통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환경평가를 수행한다. 물론 환경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대출이 중단되거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구미지역 은행들은 Deutsche Bank를 비롯하여 Barclays, ING Group, Royal Bank of Scotland, Credit Suisse Group, UBS AG, Citi group, Co-operative Bank, 등 매우 많다.

그 중 영국의 지방은행인 Co-operative Bank는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기업 성과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은행은 맨체스터市에 본사를 둔 지방은행으로 철저한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경영과 파트너십경영(Partnership Management)으로 뛰어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sup>12)</sup>.

12) Co-operative Bank는 영국 CO-OP GROUP의 은행인데, CO-OP그룹은 은행 외에도 식품회사, 여행사, 장례회사, 자동차판매회사 등 8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Co-operative Bank와 Co-operative Insurance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은행규모는 자산 약 21조 원, 고객 수 230만 명, 종업원 약 4천명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5> 영국의 Co-operative Bank의 경영성과

주요 경영지표	실적(2003년말)	비고
세전이익	1억 3,000만 파운드(약 2,800억 원)	2002년 대비 6.2% 증가
영업이익	5억 290만 파운드(약 1조 1,000억 원)	2002년 대비 4.0% 증가
Cost Ratio	61.5%	2002년 대비 1.3%p 증가
ROE	17.6%	
위험자산비율	13.5%	

Co-operative Bank의 2003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10년 연속 6%대의 이익 증가율을 실현하고 있으며, 세전이익이 1억 3,000만 파운드(약 2,800억 원)로 2002년 대비 6.2% 증가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금융기관 간 경쟁 속에서도 2003년 중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ROE는 17.6%를 기록하였다. 경영진들은 이 같은 성과를 낸 배경을 파트너십 경영(Partnership Management)을 모토로 내건 사회책임경영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주주와 고객, 임직원과 가족,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기업 가치를 공유한다는 원칙 아래 7개 항목의 실천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sup>13)</sup>. 여신 대상 기업심사에서 윤리적·환경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에 대한 여신을 거부하기도 했다. Co-operative Bank의 파트너십경영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은행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다른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낳았다.

Co-operative Bank는 1997부터 생분해되는 카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 카드와 관련된 수익금의 일부를 그린피스에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이 은행은 영업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과 환경경영 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책임 경영에서 앞서가는 또 다른 은행으로는 UBS를 들 수 있다. UBS의 환경경영은 1998년 UBS와 SBC의 합병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UBS는 같은 해에 이사회에서 환경전략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12월에 Global Environmental Risk Policy를 승인하였으며, 1992년 2월에는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투자 시 환경위험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후 UBS는 1999년 5월에 대출부문(banking operation)과 내부관리 부문(in-house operation)에 대하여 ISO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았다.

UBS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에너지절감을 통한 경비절감은 물론 환경상품의 성공적인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UBS는 환경경영을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에너지비용의 25%를 절감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에코퍼포먼스(Eco Performance)」라는 투자상품을 개발,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13) 윤리적, 환경적 기준을 적용하는 7대 부문을 정해놓고, 이들 부문 중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을 제한. RM(Relationship Manager)은 여신 신청기업에 대한 질문서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 1,700여개의 사례 연구 축적. 윤리·환경기준을 적용받는 7대 사업 부문 : ①인권(Human Right): 인권을 해치는 국가기업에 투자제한(실적 98%) ②무기거래(Arms Trade): 무기제조나 이전, 고문 및 폭력장비 관련 사업에 투자제한(실적 99%) ③기업의 책임감(Corporate Responsibility): 공정거래나 개발도상국가중 노동권중시기업에 투자확대(96%), 담배제조 및 투기자금 등 투자억제(70~80%) ④유전자조작(Genetic Modification): 의약품 개발목적 제외 유전자 조작사업에 투자제한(80~90%) ⑤기업의 사회공헌(Social Enterprise): 사회책임감이 높은 기업 및 비영리기업(Charity)에 적극 투자(95%) ⑥환경파괴(Ecological Impact): 오염물질, 환경보호단체가 반대하는 화학제조업에 투자 억제(70~80%) ⑦동물보호(Animal Welfare): 동물실험, Blood Sports(개싸움, 닭싸움 등) 등에 투자제한(80%), 동물복지사업에 적극 투자(95%)

이 밖에도 사회책임 경영에서 앞서가는 주요 은행들로는 Deutsche Bank, UBS AG, Rabo Bank, Lloyds TSB, Barclays, ING Group, HSBC, Royal Bank of Scotland 등이 있다. 지속가능성이나 환경이슈들을 주제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도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상품은 UBS의 Eco-Performance, Storebrand Scudder의 Environmental Value, Credit Suisse의 Eco-Efficiency펀드 등이며, 이들 펀드들의 수익성은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인해 향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예견하여 ABN-AMRO, UBS 등이 풍력발전펀드 상품을, Triodos Bank는 태양열에너지 등 특정 환경기술에 대한 펀드상품을 각각 내놓고 있다.

## 2. 일본 금융기관의 사회책임경영<sup>14)</sup>

최근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사회책임을 주요 핵심 경영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의 도시은행과 지방은행은 CSR경영의 도입을 IR활동과 투자유치, 주가관리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JSI<sup>15)</sup>에는 일본 기업 중에 35개 사가 선정되었지만 이 중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손보재팬, 다이와증권그룹, 일본의 지방은행인 하치쥬니(八十二)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의 합병회사인 FTSE사가 DJSI와 같이 기업의 사회책임이나 지속적 성장의 기대 정도를 기준으로 한 주가지수 FTSE 4GOOD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 FTSE 4GOOD Global Index나 일본 기업의 주식만으로 구성된 FTSE 4GOOD Japan Index에도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었고, 금융기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일찍부터 CSR경영을 시작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바로 손해보험업계이다. 예컨대 손보재팬에서는 1992년에 「환경 사회공헌부」를 설치하고, 사원자원봉사자(volunteer) 활동, 자원 및 에너지절약 활동, 환경보호관련 상품의 개발 활동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손보재팬은 ISO취득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환경관련 상품을 개발해 왔다.

은행계로 눈을 돌리면, 스미토모(住友)신탁은행이 2003년 6월에 CSR경영의 중핵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활동 총괄실’을 설치하는 한편, 기업연금 대상 SRI펀드를 설정하고 사회활동 현장을 제정함과 동시에 개인대상 SRI펀드를 취급하였다. 미즈호은행의 경우에는 CSR경영 전담조직으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에 CSR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즈호은행에는 CSR추진실을 설치하였다. 미즈호은행은 프로젝트금융에 의해 풍력발전소나 쓰레기폐기시설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자연보호기금(WWF)재팬에 기부하는 기능이 부가된 계좌 즉 「미즈호종합계좌」(사회공헌형)나 東京都의 디젤차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東京都디젤차특별융자제도」 등 환경보전에 공헌하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취

14) 近代セールス, 地域金融機関にも広がるCSRへの取り組み, 2004.11.15月号, p80, リージョナルバンキング, “日本における社会的責任投資(SRI)の流れ” 2004年 4月, リージョナルバンキング, “金融機関の環境問題への関わり” 2004年 4月, 近代セールス, “金融機関に求められるCSR” 2005년 12월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15) 사회책임투자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사회책임투자지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가 있다. DJSI가 각광을 가장 큰 이유는 사회책임투자방식이 기존의 투자방식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다.

급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파인내설그룹도 그룹 내에 CSR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기획부의 부내 실로서 CSR추진실을 두고 있다.

CSR경영 움직임은 지방은행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시가은행(滋賀銀行)은 고객이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 은행부담으로 일정액을 일본 최대의 담수호인 비와코(琵琶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자금으로 거출하는 예금「시가킨에코플러스정기」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은행은 일본의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UNEP(국제연합환경계획)가 제창하는「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기관 성명」에 참가하고 있다. 시가은행은 2004년 4월에 종합기획부 산하의 환경실을 ‘CSR추진실’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하치쥬니은행(八十二銀行)은, 2004~2006년의 장기경영계획에 CSR경영을 반영하여 법령준수(compliance)·환경 등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동 은행은 환경보전형 대출상품으로서, 기업의 ISO인증취득이나 나가노현(長野県)의 신배수(新排水) 기준 준수를 위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론을 판매하고 있다. 하치쥬니은행은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평가받아 동 행의 주식은 일본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DJSI의 기업리스트에 올라 있다. 지금까지 일본 금융기관의 상당수는 명함이나 사내 서류를 재생지로 이용하거나 전력사용량을 삭감하는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공해차나 하이브리드 차(hybrid car)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환경보전관련 금융상품을 개발, 취급하거나 환경보고서나 CSR리ports를 작성, 공표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쥬고쿠은행(中国銀行)은 종전의 지역밀착경영 활동을 CSR경영으로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CSR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구마모토(熊本)패밀리은행도 제5차 중기경영계획(2004년 4월~2006년 3월)에서 지역공헌 NO1은행을 지향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점 시책의 하나로 채택하여 환경문제나 CSR경영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 10월 CSR추진실을 설치하였다. 시즈오카은행(静岡銀行)은 2005년 4월 출범한 제9차 중기경영계획 ‘창조와 변혁으로의 도전’에서 CSR을 기업 활동의 기본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면에서의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기업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환경, 직장환경, 윤리 등에 대한 대응이 금융기관의 CSR경영의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이제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불량채권의 처리상황이나 건전성만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CSR경영을 주된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관계금융을 모토로 하는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는 CSR경영의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지역금융기관들은 해외투자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높은 신용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CSR경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 IV. 국내 금융기관의 기업의 사회책임(CSR)경영 실태

### 1. 기업의 사회책임(CSR)과 관련된 국내의 정책환경

세계적으로 CSR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업계와 정부 일각에서 CS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2005년 10월 현재 국내 기업 중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2개사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2천개가 넘는 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정보 공개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한 국내 기업은 5개뿐이며, 2005년에 DJSI에 새로이 편입된 삼성SDI가 2004년에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CSR의 흐름에 크게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방콕에서는 사회책임(SR)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제2차 ISO/SR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SR의 범위 및 SR적용 절차에 대한 구도가 구체화되었다. 또한 ISO는 SR에 대한 국제표준을 늦어도 2008년까지 제정기로 합의하였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은 전무하여 규격제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내 업계 및 관련 단체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사회책임(SR)의 범위

범위	주요 내용
부패방지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 모든 종류의 부패를 방지
환경	환경예방, 환경책임 활동, 환경친화기술 개발 등
노동	어린이 노동착취금지, 차별고용 철폐,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권 등
인권보호	건강증진, 질병과의 투쟁, 균등·평등 기회제공 등

자료 : 제2차 ISO/SR 작업반 회의결과(2005. 9. 25)

우리나라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SR국제표준화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2005년 6월부터 「SR표준화 포럼」을 설립, 운영 중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2차 ISO/SR 작업반 회의에서 SR표준안 프레임워크 초안이 마련된 만큼 산업계와 소비자, 노동, 환경 등 각계 각층의 SR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SR표준화포럼」의 역할과 기능을 국제표준화 대응과 국내 확산 부문으로 대응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SO의 SR표준화 작업 동향을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을 통해 수시로 국내에 전파 이해를 제고시켜, 최소한 국제규격 초안(DIS) 및 최종안(FDIS)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 2. 국내 은행권의 사회책임경영

과거 산업자금의 조달창구 기능을 주로 수행해 온 국내 은행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영리성과 상업성을 회복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은행시스템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중하여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적자금으로 회생된 은행이 예대마진 및 수수료 부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수익의 대부분이 국내외 주주와 임직원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들은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회복지, 교육장학, 문화예술, 환경보존 등의 분야에서 기부, 출연,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부금 등 사회공헌지출규모도 선진국 은행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공헌형 지역밀착경영의 모범사례로 대구은행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동행은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라는 경영이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각종 사회복지, 문화예술, 장학사업, 자원봉사, 환경보전 등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2002년도부터 전 임직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DGB봉사단’을 결성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신상품 개발,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특화상품 중개, 어린이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밀착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제휴카드 확대, 점주1단체 조직화 및 직원1단체 가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사이버독도지점을 개점하여 독도탐사대 및 독도발전기금 조성 지원 등 독도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장학금 수혜학생들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학협동 및 문화이벤트, 대학입시설명회, 유학설명회 및 청소년·여성고객들에 대한 ‘경제교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중에는 당기순이익의 4.5%인 78억 여원을 지역공헌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한국을 빛낸 CEO’ 윤리경영 부문에서 은행장이 수상한 것을 계기로 윤리경영 실천 우수 거래기업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고객 만족과 주주가치 경영은 직원중심 경영에서부터’라는 슬로건 하에 CEO와 일반 직원들과의 산행,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포장들에게 만보계를 지급하여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향후에는 영국의 Co-operative Bank와 일본의 하치쥬니(八十二)은행 등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책임경영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책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적책임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의 사회적책임경영이 선진국 은행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으로서는, 먼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직면한 가운데, 주주 중심의 영미식 지배구조가 도입되고 외국인 지분이 상승함에 따라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이 지배적이었던 데 기인한다. 그 결과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경영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게다가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건이 채 성숙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금융환경 하에서 은행의 공익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못했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경영을 기업가치 제고로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미흡했다.

<표 7> 국내 주요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및 지출금액(2005년 9월말 현재)

은행명	주요 내용	지출금액
국 민	기부금(사회연대은행, 불우이웃돕기, 재난구호, 장학금 등) 47억, 무의탁노인·청소년 초청 6억, 봉사활동 1.4억 등	58억원
우 리	순익의 1% 사회공헌 목표, 사회복지시설 후원, 불우아동돕기, 사랑의 집짓기 등	69억원
외 환	사회공헌재단(나눔재단) 설립 추진 50억, 밥퍼나눔운동본부 등 봉사활동 10억, 지진해일 구호자금 2억, 장학금 등	75억원
하 나	문화사랑기금, 지진해일 지원,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24억원
조 흥	사회연대은행 31억, 청계천 벽화사업,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등	90억원
SC제일	사회복지기금(한사랑캠페인) 6억, 아동청소년 그룹홈 지원, 시력회복운동, 각종 자선바자회 등	9억원
대 구	교육장학 출연 29억, 사회복지기금 13억, 체육진흥 7억, 문화예술 5억, DGB봉사단(2,553명) 봉사활동 93회, 기타 환경보전 등	54억원
부 산	체육진흥부문 출연 4억, APEC회의 지원, 사회복지봉사(127회), 지역봉사단(2,600명) 등	9억원
경 남	교육장학 출연 8억, 문화예술봉사(138회), 청소년 금융교육, 봉사단(34개) 등	17억원
광 주	문화예술 출연 11억, 사회복지봉사(31회), 봉사단(23개) 등	17억원
전 북	공익목적 출연 9억, 사회복지봉사(27회), 봉사단(600명) 등	20억원
제 주	공익목적 출연 5억, 환경정화 봉사(17회), 봉사단(150명) 등	9억원

주: 1) 지방은행의 활동내역은 2004년 기준, 기부금은 2005년 예산기준.  
 2) 대구은행은 2005년중 78억 원을 지출

은행들이 거래 기업을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유도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에 있어 은행의 역할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 많은 기업으로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의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종래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은행들은 일반기업이나 여타 금융회사들과 달리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특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여신을 정리하고 이제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11월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은행경영강령16’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sup>17)</sup>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5년 2월 은행연합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SRM), 사회적 책임 투자(SRI), 윤리경영, 환경경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속가능경영(SM)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이 연구회는 은행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SRI 가이드 개발과 보급, 외국계 은행연합회와의 인적교류 및 프

16)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3개 항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2개 항목), 금융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2개 항목) 등 7개 항목을 두고 있다.

17)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최대의 화두로 대두한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기관 선언문(Statement by Banks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채택되고 이를 집행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금융기관 이니셔티브(UNEP Financial Initiative: UNEP FI)”가 설립되었다.

로그래밍 공유 활성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의 「금융기관 사회책임에 대한 연구 및 자발적 협약」에의 은행 가입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sup>18)</sup>

### (1)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의식 제고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을 위한 강도 높은 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금융감독당국도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금융사고가 나거나 한 번이라도 은행의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고 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이 허물어지고 사회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클린센터와 「외부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손실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실천서약 등 임직원 행위준칙을 전면 개정하고 윤리준법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2) 환경경영

최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도 환경리스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외 사례들을 적극 수집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이 환경관리시스템 국제규격인 ISO14001을 취득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들은 아직까지 관련 자료수집과 봉사활동에 그치는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즉 '1사 1산 운동' 과 '1사 1문화재' 등 자연보전과 문화재 보호, 주변 청소 등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환경리스크 관리가 금융기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조만간 환경리스크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위험 요인을 대출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내에서도 친환경 경영이 시대적 조류임을 감지하고 환경리스크의 관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환경금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은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회책임경영의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

### (3) 저소득층 지원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수익기반의 안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접근 유지·확대, 지역개발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은행공익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의 휴면

18) 2005년 7월 1일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국제적인 GRI 원칙에 따라 「신한은행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제 은행의 사회책임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예금으로 충당되며 실질적인 활동은 2006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설립될 공익법인을 통해 전개될 사업은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IDA), 기타 사회공헌사업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공익법인은 우선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창업 관련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익법인은 저소득층 개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산형성지원제도(IDA)<sup>19)</sup>에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내 은행들은 사회연대은행<sup>20)</sup>을 통해 청년가장 돕기와 여성가장과 탈북자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4) 사회공헌 전담 ‘나눔재단’ 설립 추진

지난 2004년까지 은행권이 매년 지출해온 사회공헌기금의 규모는 당기 순이익 대비 0.1~0.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평균치인 6~7%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휴면예금<sup>21)</sup>을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을 내면서도 일반 기업들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시혜성 봉사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제도를 마련하는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 (5) 공익상품 판매

국내 시중은행들은 고객들도 사회공헌에 동참하도록 공익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공동 판매하는 ‘사랑의 약속예금’에 가입하면 연 3.0%의 금리에다 현월과 장기기증 0.65%포인트, 혈소판 현월이나 출산 입양 0.75%포인트, 국가유공자 0.85%포인트씩의 보너스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Tops 아름다운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1호’를 내놓았다. 판매 운용사의 수익금 일부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제일은행의 ‘사랑의 열매통장’은 은행이 예금액의 연 0.1%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상품으로, 고객은 보너스 금리 0.1%포인트를 더 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KB사랑나눔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기부단체는 우대금리와 함께 수수료 우대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 (6) 기타

이밖에도 사회책임경영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은행의 지속가능경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취지의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중 심장병이나 희귀

19) 자산형성지원제도(IDA)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그 금액의 2배를 더 보태주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정부가 100만원, 은행공익법인이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20)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 2월 ‘(사)함께 만드는 세상’으로 발족하여 여러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저소득여성가장 창업과 희망의 공부방 만들기,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1) 휴면예금이란 5년 이상(보험은 2년)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이다.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잠수익으로 처리해 왔으며 법적지급 의무가 없지만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해 주고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규모는 연간 평균 1,000억 원 정도로 지난해에는 1,686억 2,300만 원이 은행의 잠수익으로 처리된 바 있다.

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사랑, 나눔, 희망, 미래 등 네 가지 주제별로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회공헌형 사이버 은행인 「아름다운 은행」을 개설하여 이 사이트를 통해 적립된 기금은 아름다운 재단 등에 기부하고 있다.

## V.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 실현을 위한 국내 금융기관의 과제

### 1.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과 국내 금융기관

국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들에 있어서도 보다 총체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금융감독원 발표자료<sup>22)</sup>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적자금으로 회생된 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정성 및 단기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책임에 관한 국내 은행의 인식 및 관심 제고를 유도하고, 시장규율을 통한 공익기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사회책임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화, 대고객 윤리경영 강화 유도, 중소기업금융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형대출 (relationship banking) 활성화 유도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사회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들의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들의 경제적 가치제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원칙과 철학을 세우고 제시하여 시장을 주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금융기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화시켜 나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에게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와 지방화 시대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영환경 하에서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고 규모면에서 열세에 놓인 지역금융기관이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과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서 대형은행보다 한발 앞서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기업의 사회책임(CSR) 실현을 위한 국내 금융기관의 과제

기업의 사회책임은 머잖아 금융기관의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으로 표준화되고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책임의 이행 여부와 정도는 금융기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사회책임은 단기적인 성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기업에 우호적인 정체성 및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이해하고 전

22)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5. 12. 28)

략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책임이 단기적 이벤트성이나 수사적 구호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업문화에 흡수되어 정체성으로 확립되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들의 개발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사회책임 활동 성과로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광역의 다각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익기반을 다양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책임(CSR)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책임이행과 관련된 경영상 과제를 구분해 보면, 경제적·금융적 책임(Economic or Finan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환경 및 생태보존의 책임(Ecological o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윤리 및 투명경영의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경제적·금융적 책임(Economic or Financial Responsibility)은 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인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공정한 룰에 입각하여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지원기관, 민간단체 등 혁신 주체들과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벤처기업과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금융(Micro Finance) 지원 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열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혁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RIS)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

둘째 과제는 사회공헌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다. 금융기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개 기능 외에도 주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 사정의 한계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서 재정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지원 활동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학술·체육의 진흥에 힘쓰는 한편,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문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이를테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학생과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 가계와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여성 인력의 활용,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응을 위한 모성보호 및 탁아소 운영, 노인 복지시설 건설 지원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실버 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가사 결정권 증대 추세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새로운 사업분야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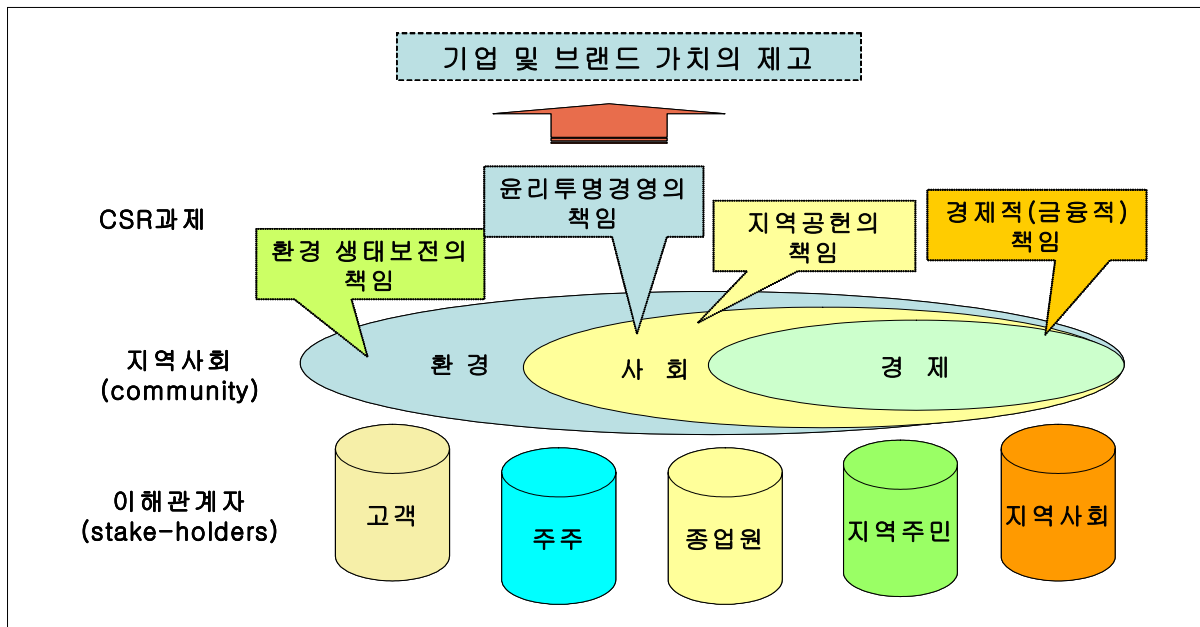
셋째 과제는 환경·생태 보존의 책임(Environmental or Ecological Responsibility)이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선진 기업들의 환경경영 움직임을 거울삼아 국내 금융기관들도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에 앞장서야 할 때다. 문서 작성 시에 이면지를 활용하거나 재생지를 활용한 명함 제작을 권장하는 한편, 쓰레기 배출량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 및 물 소비량을 억제하는 운동을 펼치는 한편, 기업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하고, 직원 차량의 부제 운행

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회사 내에 녹지 공간 확대 등 가능한 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회사 주변과 영업점 주변의 청소에서부터 강·산·공원·사적지 등의 자연과 문화재 보전 사업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환경경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 공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용 한도와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조유자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 관련 기반시설(SOC) 건설에 투자하거나 환경 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윤리·투명 경영의 책임(Ethic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엔론·월드컴의 회계부정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태에서나,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정경유착 사례는 기업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기업의 브랜드와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선진 기준에 맞게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 문화와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임직원 윤리강령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공정 공시와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IR은 투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1> 금융기관의 사회책임경영 과제



기업의 사회책임(CSR)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관심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CSR추진을 위한 명확한 방침과 방향이 제시되고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경영 부문의 ISO14001, 2008년에 제정될 사회적책임(SR)부문의 ISO26000 표준 등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제 투자 자본의 잣대로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책임을 고려한 지표가 마련되고 있

음에 따라 이들 지표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테면 다우존스지속가능성 세계지수(DJSI)나 FTSE4Good지수의 획득을 추진하고 사회책임이 평가 구성항목으로 포함된 경제전문지 포천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때다.

기업의 사회책임(CSR)을 추진함에 있어 당면하는 문제점은 지역사회와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 방침이나 금융기관의 경영 전략이 단기적인 경영 효율성이나 업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오늘날의 경영 환경 하에서 기업의 사회책임(CSR)을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공헌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경험에서 볼 때 CSR의 실시는 초기 단계에서는 내부 종업원들의 긍지와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해당 기업의 대외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으며, 마침내는 매출 증대와 수익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하치주니(八十二)은행과 영국의 Co-operative Bank의 경우는 CSR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거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CSR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객, 주주, 거래처, 종업원, 지역주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그 결과 어떠한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CSR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게도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 정책자료집,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2005. 6.
- 권동혁, 박지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Sustainability Issuepapers 제29호 ECO2005-10.
- 권동혁,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의 의미와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Sustainability Issuepapers 제 18호 ECO2004-15.
- 김용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2004.1.13.
- 산업연구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e-kiet, 산업경제정보, 제182호, 2004.1.13.
- 산업연구원, “CSR라운드에 대한 대비 시급”,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44호, 2005.2.3.
- 송인경, “지속가능금융과 사회책임투자”, Sustainability Issuepapers 제27호 ECO2005-07.
- 임대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동향 및 의의”, (주)에코프론티어, 2005.4.
- 임대웅, “지속가능발전과 은행부문의 변화”, (주)에코프론티어, 2004. 1.
- 장영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2005.
- 진병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부산발전연구원·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지역금융연구회·매일경제 공동주최, 지역발전포럼, 2005.12.8.
- 진병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역금융기관의 대응”, 지역경제연구회, 지역경제, VolⅢ, 2005. 12.
- 진병용·황병우, “지방분권화시대 지역혁신금융시스템의 구축방안”, 대은경제리뷰, 2004년 3-4월호.
- 최용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대구경북지역 발전 심포지엄, 산학경영기술연구원, 2002.
- 近代セールス, 地域金融機関にも広がるCSRへの取り組み, 2004.11.15月号, p80.
- 近代セールス, 金融機関に求められるCSR、“環境リスクとマネジメント”, 2005.12.15.
- 日本環境省, 金融業における環境配慮行動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 14年 3月.
- (株)価値総合研究所, エコファンド -その現状と可能性, 平成 13年 12月 8日.
- 損害保険ジャパン, 社会的責任投資(SRI)とエコファンド, 2003年 11月 20日.
- みずほ総合研究所, CSR(企業の社会的責任) 概念の展開, みずほりポート, 2003年 3月 20日.
- みずほ総合研究所, CSR(企業の社会的責任)は普及するか, みずほりポート, 2005年 10月 12日.
- リージョナルバンキング, “日本における社会的責任投資(SRI)の流れ” 2004年 4月.
- リージョナルバンキング, “金融機関の環境問題への関わり” 2004年 4月.
- 山本良一, “これからの日本の企業のCSR”, 2004年 1月16日 環境報告書シンポジウム 基調講演.
- Andrés R. Edwards, The Sustainability Revolution Portrait of a Paradigm Shift, 2005.6.
- Christopher Laszio, The Sustainable Company: How to Create Lasting Value Through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2003.
- csr.gov.u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 Draft International Strategic Framework, 2005.
- Marc J. Lane, Profitable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Makes a Convincing and Provocative Case For Values-Based Investing, Corporate and Social Change Pioneer of 'Advocacy Investing' 2005. 5.
- SIF Industry Research Program, 2003 Report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2003.12.

